만나고 싶었습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3년차 중앙회장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은 '종교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임기가 끝난 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낸 회장' '법우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준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불련은 인연!…젊은 세대 공감하는 불교 만들겠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하다. 강의실을 오가는 학생들, 동아리를 홍보하는 선배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신입생들까지 저마다 설렘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속에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이다.

그는 각 대학 동아리 홍보 일정에 맞춰 캠퍼스 포교를 지원하고, 전국 지회를 돌며 포교 활동을 챙긴다. 동시에 중앙회 업무까지 도맡고 있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다.

"아, 나 중앙회장이었지!"

회장직을 맡은 지도 벌써 3개월. 실감이 나지 않다가도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새삼 그 무게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다.

유 회장은 불교와 항상 자연스럽게 함께해 왔다. 신심 깊은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는 그의 삶 가까이에 있었다. 가족여행을 가면 꼭 사찰을 들르곤 했고, 보시를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불교의 가치를 체득했다.

본격적으로 불교에 발을 들인 건 대학 입학 후였다. 어머니의 권유로 불교동아리에 가입했고, 이를 계기로 대불련 활동까지 참여하게 됐다. 돌아보면, 그에게 대불련은 '선택'이라기보다 쌓아온 인연의 결과와 같다.

그 인연의 시작은 부모님에게서 비롯됐다.

1990년대. 그의 어머니는 마산대에서, 아버지는 전북대에서 각각 대불련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전북대에서 열린 대불련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올해 마지막 날은 보신각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락이 쉽지 않았고, 연말 인파로 서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보신각 앞에서 "남북 화합"을 외치며 대불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날의 우연한 재회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했다. 유 회장은 부모님의 만남을 "부처님의 가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출신인 부모님은 불교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불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어머니께서는 대학 시절 대불련 활동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학생 때야말로 불교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적기라며, 저에게도 꼭 경험해보라고 추천하셨죠."

유 회장에게 불교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다. 대학 생활 중 크고 작은 고민과 방황의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 같은 존재였다. 디자인을 전공하며 졸업 전시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불교동아리 도반들과 함께하는 법회와 수행으로 마음에 평안과 쉼을 찾았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경구도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뜻으로, 늘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살다 보면 남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 대신 길을 정해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내 안에서 빛을 찾고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 회장은 2023~2024년 창원대 불교동아리 회장과 대불련 창원지부장을 맡아 직접 동아리를 키운 경험이 있다. 창원대 불교동아리는 대불련 산해원지부(마산, 진해, 창원)와 역사를 함께하며 1975년부터 교내 연등행사를 비롯해 장학금 모금·지원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던 중 유 회장은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지원 속에 8년 만에 불교동아리 재창립을 이끌었다. 유 회장은 한동안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맨땅에 헤딩'하듯 동아리 박람회에 참가해 불교를 알렸고, SNS 홍보로 회원 모집에 힘썼다. 그 결과 회원 수 70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고, 동아리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불교를 배우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이 경험은 지금의 그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

대불련 출신 부모님 권유로 활동 시작
8년 만에 창원대 불교동아리 재창립도
'매뉴얼북·가이드북' 연내 발간이 목표
"불교=나를 찾는 과정, 한 단계 성장"

임기가 끝나자 그는 괜스레 아쉬움을 느꼈다. 배운 것을 더 활용하고 싶었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다. 고민 끝에 대불련 중앙회장직에 도전했고, 많은 이들의 지지 속에서 중앙회장 역할을 맡아 전국 18개 지부 18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대표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62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2025년을 시작으로 대불련이 한층 더 성장하고 여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만큼 중앙회장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다. "처음엔 큰 두려움 없이 가볍게 시작했는데, 막상 맡아보니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름 신경 쓴다고 해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자리에 걸맞게 더욱 진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 회장은 3월 대학 개강 시즌을 맞아 동아리 박람회 지원과 캠퍼스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 배포되는 선물꾸러미는 디자인부터 문구 제작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다. 볼펜, 물티슈, 책갈피,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물품 곳곳에 '충격! 부처님 실존! 그것은 내 안에!'" 같은 문구를 새겨 넣으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조금 신박하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었다.

오는 8월 열릴 '영 부디스트 캠프'도 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인 만큼, 그는 '즐거운 불교'와 '가치 있는 경험'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주제와 프로그램 기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수인계 매뉴얼북'과 '불교동아리 가이드북'도 올해 안에 완성해 후배 불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불교동아리 법회를 절에서 해야 할지 강의실에서 해야 할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일이구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남겨 주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불교동아리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불교를 직접 실천하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108배 수행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제가 생각하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활동은 '종교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에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나'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하죠."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힙한 불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회장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 멋지다고 느껴지니깐 불교도 힙한 종교가 되는 것"이라며 "멋진 나를 찾고 싶다면 불교로 오라"고 권유했다. 그는 이어 불교에 푹 빠진 젊은 세대를 일컫는 '불미새(불교에 미쳐 새롭게 태어난 사람)'를 언급하며 "불교를 가볍게 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 역시 '불미새' 중 한명이라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의 목표는 분명하다. '종교는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힙한 불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낸 회장', '법우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준 회장'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①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신입 회원 모집 부스를 응원 방문한 유주연 회장. 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MZ셀카'를 찍고 있다. ③ 8년 만에 열린 창원대 불교학생회 재창립 법회에서 김성진 대불련 산해원지부 동문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